

# 한국사

문 1.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광적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중략) … 농민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을 본받아서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먹는다.

- ① 상, 대신,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으며, 연과 대립하였다.
- ② 신지, 읍차로 불리는 군장들이 70여 개의 소국을 다스렸다.
- ③ 가축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④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으며,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제가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문 2. ⑦ 왕호를 사용하던 신라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신라 왕으로서 거서간, 차차웅이란 이름을 쓴 이가 각기 하나요, 이사금이라 한 이가 열여섯이며, ( ㉠ )(이)라 한 이가 넷이다.

—『삼국사기』 —

- ① 율령이 반포되었다.
- ②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③ 왕위의 부자상속제가 확립되었다.
- ④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문 3.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음에 왕들이 자주 학생들을 보내어 장안의 태학에 가서 고금의 제도를 배우도록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해동 성국이 되었다. 땅에 5경 15부 62주가 있다.

- ① 당과 비단, 서적, 공예품을 교역하였다.
- ② 도서와 문서를 관장하는 문직원을 두었다.
- ③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천손임을 자부하였다.
- ④ 정효공주묘는 굴식 돌방과 모줄임천장 구조로 축조되었다.

문 4. 백제가 일본에 전파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안무가 유학을 전해 주었다.
- ② 노리사치계가 불교를 전해 주었다.
- ③ 혜관이 일본 삼론종의 시조가 되었다.
- ④ 아직기가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문 5. ⑦ ~ 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에 소속된 주서는 왕과 신하 간에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여 ( ㉡ )을/를 작성하였다. 왕이 바뀌면 전왕의 통치기록인 사초, 시정기, 조보 등을 합하여 ( ㉢ )을/를 편찬하여 4부를 만들고 한성에는 ( ㉣ )에 보관하였다.

- ① ㉠ – 의정의 합좌 기관으로 백관과 서무를 총괄하였다.
- ② ㉡ –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였으며, 세계기록유산이다.
- ③ ㉢ – 임진왜란 이후 전주, 성주, 충주에 지은 사고에 각기 보관하였다.
- ④ ㉣ – 국왕의 교서를 제찬하고 외교사무를 관장하였다.

문 6. 고려시대의 상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려 초기 개경, 서경 등에 시전을 두었다.  
ㄴ.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주조하였다.  
ㄷ. 충선왕 때에 각염법을 실시하였다.  
ㄹ. 사원과 소(所)에서 수공업 물품이 제작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7. 밀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 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 ① 동학 짐주로서 농민 전쟁에 참전하였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 ③ 민족 자주 연맹을 결성하여 남북협상을 주도하였다.
- ④ 신탁통치를 반대한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문 8. 다음 시가가 만들어진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시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시니, 백성이 그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들에게, 이를 먹여 다스리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랴, 나라 안이 유지됨을 아리이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리라.

—『안민가』 —

- ① 9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 ②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③ 최초로 진골 출신이 왕이 되어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④ 최치원이 국왕에게 10여 조의 시무책을 건의하였다.

문 9. ⑦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장사 최윤의 등 17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고금의 서로 다른 예문을 모아 참작하고 절충하여 50권의 책을 만들고 (⑦)(이)라 이름하였다.

—『동국이상국집』—

- ① 교서관에서 갑인자로 인쇄되었다.
- ② 금속활자로 인쇄한 판본이 남아있다.
- ③ 최씨 집권기에 활자본 28부를 간행하였다.
- ④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문 10.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최명길이 마침내 국서를 가지고 비변사에서 다시 수정하였다. 예조판서 김상현이 밖에서 들어와 그 글을 보고는 통곡하면서 찢어 버리고, 왕께 아뢰기를 “명분이 일단 정해진 뒤에는 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군신의 의리를 요구할 것이니 성을 나가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중략)…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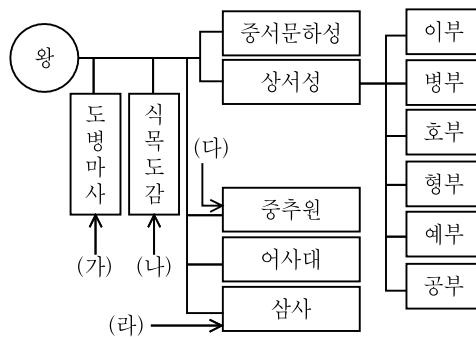
- ①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하여 총융성을 설치하였다.
- ② 훈련도감을 신설하고 포수, 사수, 살수 등 삼수병을 두었다.
- ③ 북벌 계획에 따라 어영청을 정비하여 화포병과 기병을 늘렸다.
- ④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 기병과 훈련도감군의 일부를 주축으로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문 11. ⑦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⑦)은/는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대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성종대에 발탁되어 경연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병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재지 관리를 통해 특별히 미곡을 내려 주었다. 지금 그의 제자 김일순이 사초에 부도덕한 말로써 선왕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인 (⑦)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 ① 고려 말 정몽주, 길재의 학풍을 이었다.
- ② 외가인 밀양에 서원이 세워져 봉사되었다.
- ③ 김굉필, 조광조가 그의 도학을 계승하였다.
- ④ 『여씨향약』을 도입하여 언문으로 간행하였다.

문 12.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법제, 격식을 다루었으며, (나)는 고려 후기에 도당으로 불렸다.
- ② (가)와 (나)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이며,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다)의 추신이 합좌하였다.
- ③ (다)는 왕명출납과 군기의 업무를 맡았고, (라)는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였다.
- ④ (다)와 (라)는 당제를 모방하여 설치하였고, 주요 사안을 6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문 13. 다음은 같은 인물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가)를 발표한 때부터 (나)를 발표한 때까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   |
|---|
| (가) 이제 정전이 조인되었음에 정전의 결과에 대한 나의 그동안의 판단이 옳지 않았던 것이 되기를 바란다.                     |
| (나) 나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

- ①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국민학교 의무 교육이 개시되었다.
- ③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 ④ 점령지 구호(GARIOA) 원조가 전개되었다.

문 14.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인정(人丁)에 대한 세를 신포(身布)라고 하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모두 그것이 면제되었다. 그 모자라는 액수는 반드시 평민에게만 덧붙여 징수하였다. 그는 이를 수정하고자 동포(洞布)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가령 한 동리에 2백여 호가 있으면 매 호에 더부살이 호가 약간씩 있는 것을 자세히 밝혀서 계산하고, 신포를 부과하여 고르게 징수하였다.

- ① 순무영을 설치하였다.
- ② 경상도 안핵사를 수행하였다.
- ③ 군국기무처의 총재를 역임하였다.
- ④ 갑신정변 때 청군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문 15. 다음과 같이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뿐내면 차고, 벼려 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 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工匠)이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예가 사라지게 되고,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잊었으므로, 사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 ① 『의산문답』에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 ② 서양 선교사를 초빙하여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자고 제안하였다.
- ③ 신분별로 차등을 둔 토지 재분배로 자영농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④ 중국과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관련 기록을 참조하여 『해동역사』를 저술하였다.

문 16. 대한제국의 지계발급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계아문에서 토지측량과 지계발급을 담당하였다.
- ② 개항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 ③ 모든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을 발급 대상에 포함하였다.
- ④ 러·일 전쟁으로 중단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문 17. 1910년대 일제의 지배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공은행을 조선식산은행으로 개편하였다.
- ② 계몽 운동을 주도한 황성신문을 폐간하였다.
- ③ 총독의 자문 기관인 중추원 관제를 공포하였다.
- ④ 일본인 업자에 특혜를 준 연초전매령을 공포하였다.

문 18. 다음 사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7재에 무학재를 두었다.  
 ㄴ.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ㄷ.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무과를 설치하였다.  
 ㄹ. 경정전시과에서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를 시정하였다.

- ① ㄱ → ㄴ → ㄹ → ㄷ
- ② ㄴ → ㄷ → ㄹ → ㄱ
- ③ ㄷ → ㄹ → ㄱ → ㄴ
- ④ ㄹ → ㄱ → ㄴ → ㄷ

문 19. 다음 강령을 선포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우리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을 기함
-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보기>

- ㄱ. 전국에 지부를 건설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ㄴ. 이른바 8월테제를 발표하여 토지 혁명을 제창하였다.  
 ㄷ. 남북을 통합한 좌우 합작으로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ㄹ.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

문 20. 밑줄 친 ㉠,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대부가 수백 년 동안 관직에서 막혀 있어도 존부 (尊富)를 잃지 않는 까닭은 집집마다 각기 한 조상을 떠받들고 넓은 농지를 점하여 종족이 흩어져 살지 않으므로 그 ㉠ 풍습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근본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유당전서』—

- 퇴계 이황이 영남 예안에 역동사(易東祠)를 창건하고 ㉡ 족보를 손수 필사하여 그곳에 보관하였다. …(중략)… 산이 있으면 물이 있는 것이니 백파(百派)가 순류하여 끝내 한곳에 모이는 것인데 이는 종합(宗合)의 뜻이다.

—『단양우씨 족보서』—

- ① ㉠ – 친영이 일반화되었다.
- ② ㉠ – 이성불양의 관념으로 양자 제도가 확산되었다.
- ③ ㉡ – 동성 마을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 ④ ㉡ – 적서 차별과 가족 간의 위계를 중시하였다.